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창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漢拏日報 제8958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10월 2일 수요일(음력 9월 4일)

4·3 세계기록유산 등재 '무한 대기'

제주도, 정부·군경기록 등 대상 등재 사업 추진
유네스코 2년째 심사보류… 목표 일정 수정키로
2021년 신청서 제출 계획… 12월엔 관련 심포지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이 유네스코 본부 내부 문제로 무기한 대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돼 4·3 기록물 세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015년 제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4·3유적과 기록유산의 국가 및 국제적 공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이후 지난해 7월 세계기록유산 조사가 본격 착수되면서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이 본격화됐다. 등재 대상은 4·3 관련 재판기록물과 정부·군경기록, 미군정기록, 무장대기록, 진상규명과정 등이다. 등재 목표 연도는 오는 2021년으로 정했다.

2021년 등재하려면 올해에는 신청서 접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유네스코 본부의 내부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유네스코 본부는 세계기록유산 새 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지난 2017년 공고했던 심사 건수를 모두 보류한 상태다.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2017년부터 준비하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4·19혁명기록물 등의 신청 작업도 이러한 유네스코 본부 사정으로 멈춰 있다.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도 사정이 비슷하다. 유네스코 본부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마냥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등재신청 연도를 2021년 12월로 미루는 등 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오는 12월에는 4·3 기록물 유네스코 국제 심포지엄 등을 열고 해외 등재 사례를 점검하는가 하면, 이달부터 신청서 초안 작업과 등재대상 기록물 수집 및 목록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관련 업무는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돼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와 재단 관계자는 "유네스코 본부 상황은 아직 변화가 없지만 신청서 초안 작업 등에 돌입해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내실있는 기록화 사업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환경보전기여금' 다시 수면 위로

제주도, 간담 등 논의 재개
도민설명회 통해 의견 수렴
공감대 확산 등 과제도 산적

답보 상태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다음달부터 재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중 숙박업과 렌터카 등 이해관계자인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간 논의 중단 상태인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TF도 12월에 재가동될 전망이다. 이어 내년 초 세미나와 지난해 12월 예정됐다 무기한 연기된 도민설명회를 이르면 상반기 중 개최(총선 이후)하는 등 홍보 추진계획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부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공감대 형성이 가장 기본인만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향후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제주도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오은지기자

청년DREAM 취업박람회 1일부터 참여자 사전 모집

현재 69개 업체 참여 의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19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 IP(지식재산) 페스티벌'의 참여기업과 채용규모를 확정하고 청년 참여자를 사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참여기업은 69개 업체로 현장채용 24개, 간접채용 30개, 기술전시 15개 업체 등이다.

12월말 대규모 공채 예정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은행, 제주신화월드, (주)부루벨코리아, 더쇼어호텔제주(구.하얏트), 모노리스제주파크(주) 등 채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특성화고 학생 및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행사 사전등록은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신청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특별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 드론 시연, AI현장매칭, 온라인화상면접, 디지털 스탬프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선보인다.

도내 최초로 AI가 적용된 온라인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구인기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온라인 화상면접 시연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064-710-4442), 제주상공회의소(064-757-2164), 제주지식재산센터(064-759-2555)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새벽잠 깨우는 천둥·번개 1일 새벽 한라산 중산간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 북부와 서부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강희만기자

알림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개막식 취소

오는 3일 진행되는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개막식 및 식전행사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취소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날 진행되는 '해설사 동행 탐방 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운영되며, 식전 행사로 예정돼 있던 '돗제'와 '멸치후리기'는 5일로 연기됐습니다.